



"The borderline work of culture demands an encounter with "newness" that is not part of the continuum "문화의 경계선 상에 위치한 작품은 과거나 현재의 연장이 아닌 "새로움"과의 만남을 요구한다. 이러한 작품은 of past and present. It creates a sense of the new as an insurgent act of cultural translation. Such art does 문화변동이 지나는 반란행위라고 할 수 있는 새로움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예술은 단순히 사회적 원인이나 미 not merely recall the past as social cause or aesthetic precedent; it renews the past, refiguring it as a 적 선례로서 과거를 바라보지 않는다. 과거를 우연적이고 '중개자적인' 공간으로, 현재의 활동에 개입하고 혁신 contingent in-between' space, that innovates and interrupts the performance of the present." 하는 공간으로 재인식하여 새롭게 탈바꿈 시키는 것이다."

- Homi Bhabha, Location of Culture  
-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Originally associated with the Jewish Exile, in current usage, diaspora refers to a range of territorial 원래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디아스포라'는 이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일련 displacements, forced or voluntary. The concept engenders an equally expansive scope of discussions of the 지리적 이동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국가, 언어, 정체성, 역사, about nation, language, identity, history, memory, home, geography, ambivalence, difference, 지역, 고향, 지리, 모호성, 차별성, 확실성, 혼성, 식민주의, 후기식민주의 등의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authenticity, hybridity, colonialism, and post-colonialism, among other topics. Diaspora can offer a 디아스포라는 호미 바바가 언급한 "문화의 경계선 상에 위치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 동시에 useful framework to examine Bhabha's "borderline work of culture," enabling a focus on the 세계화의 물결 속에 놓인 한국인들의 지역과 경계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천년을 맞 predicament of place and borders for Koreans in a globalized context. In the new millennium, Koreans 은 지금, 한국인들은 전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60여 개 국에 흩어져 살고 can be found in nearly every corner of the world; among the estimated six million who live in 160 있는 약 600만의 한인들 가운데에서도 다섯 지역-알마티(카자흐스탄), 로스앤젤레스(미국), 오사카(일본), 상 different countries of the world, this project takes a closer look at those who have settled in five sites-- 파울로(브라질), 연길(중국)-에 정착한 한인들을 살펴볼게 된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다섯 개 주요 정착지들은 Almaty (Kazakhstan); Los Angeles (United States); Osaka (Japan); São Paulo (Brazil); Yanji (China). These 독특하고 다양한 특성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시작품 중 일부는 그 지역의 예술문화 중심과는 비록 거리가 five significant diasporic Korean sites have distinct and diverse characteristics and histories. Although 있으나, 여기에 선정된 작품들은 모두 지역, 역사와 관련된 주관성의 다양하고 풍부한 구성을 보여준다. 프로 some are far off the beaten path as cultural centers, the works selected collectively convey rich, 젝트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 이동과 전이, 변형의 지형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하려는 시도가 polymorphous constructions of subjectivities and cultures in relation to places and history. This project 다. 달리 표현하자면, '한인성(Koreanness)'이 가령 상파울로나 오사카 같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형성되고 나 attempts to locate the production of Korean diasporic identities within the terrain of transference, 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의 한인의 후손들에게서는 브라질이나 일본의 정체성이 어떻 transmission and translation. In other words, how is "Koreanness" performed and constructed for 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instance in São Paulo or Osaka? By the same token, how are Brazilian or Japanese identities performed by those of Korean descent in these same sites?

THERE: Sites of Korean Diaspora showcases an unprecedented collection of works in a variety of media 프로젝트 2 <저자: 이산의 땅>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by artists of Korean ancestry who reside in these five sites, along with artists who address aspects of the 포함하여 앞서 언급한 다섯 개 지역의 한국계 예술가들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창조해낸 작품을 모아 보여주 Korean diaspora in their work. This multi-disciplinary project integrates a contemporary art and media 는 첫 시도이다. 그 범위는 현대미술과 미디어아트, 역사적이며 동시에 인터랙티브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exhibition with historical and interactive displays and a related symposium. The catalog additionally 전시와 전시기간 내 관련 학술회의까지 아우른다. 이외에도 이 도록 속에는 다섯 지역 출신 작가들의 다양한 samples a mix of writings from the five sites, ranging from poetry to journalistic prose. 글이 실려 있다.

THERE is pleased to extend an unlimited visa entry to all of the Gwangju Biennale denizens into the <저자: 이산의 땅>에서는 광주비엔날레를 찾는 이들에게 한인 디아스포라의 현장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비자 printed territories of the Korean diaspora. 를 가까이 무제한 발급해줄 것이다.

Yong Soon Min, curator and catalog editor of Project 2  
민영순, 프로젝트 2 큐레이터 및 도록편집





**Almaty (Kazakhstan) + Los Angeles (**



**THERE** : Sites of Korean Diaspora  
Gwangju Biennale 2002, Project 2

**Yanbian (China) + São Paulo (Brazil) + Osaka (Japan)**



Gwangju Biennale 2002  
THERE: Sites of Korean Diaspora

March 29 - June 29

Published by Gwangju Biennale Foundation  
San 149-2, Yongbong-dong, Buk-gu, 500-070 Gwangju, Korea  
Tel 82. 62. 515. 0555 Fax 82. 62. 515. 4635  
www.gwangju-biennale.org

All rights reserved.  
©Gwangju Biennale Foundation  
ISBN 00-00000-00-0-00000

발행인	김포천
편집인	민영순
인쇄일	2002년 3월 27일
발행일	2002년 3월 29일
등록번호	제 05-04-0138
등록일자	1997년 9월 1일
발행처	도서출판 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산 149-2번지 Tel (062) 515-0555 Fax (062)515-4635 www.gwangju-biennale.org

도서공급처: 머론의 책포  
서울 미포구 서교동 458-18  
전화 02-338-7620  
팩스 02-338-7623  
E-mail chungda@choffian.net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본 도록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본 법인의 허가 없이는 출판은 물론 사진사용, 영상제작 등 일체의 복제행위가 금지됩니다.

판매가 15,000원  
ISBN 89-87719-09-X 93600



디아스포라 속의 한국인 - 권병현 **6** Koreans in the Diaspora - Kwon Byoung Hyon

인사말 - 성완경 **8** Preface - Sung Wan Kyung

어떤 시대 - 민영순 **10** Certain Latitudes - Yong Soon Min

〈저기〉를 보다 - 폴 이 **60** Seeing There - Paul Yi

고려사람의 고백 계로만 - 니콜라이비치 킴 **72** Confession of Kore Saram - German Nickolaivich Kim

미국 속의 한국인 - 일레인 킴 **87** Locating Korean America - Elaine Kim

경주/가을편지 - 김학천 **101** Kyong Ju/An Autumn Letter - Kim Hak Chun

중국 조선족: 우리는 누구인가? - 류연산 **104** Ethnic Koreans in China: Who Are We? - Ryu Yeon San

브라질 한인들의 경이로운 수수께끼 - 김우진 **107** The Amazing Riddle of Koreans in Brazil - Kim Woo Jin

윤화의 오월 - 종주월 **117** The May of Our Reincarnation - Chong Chu-Wol

별 - 김창생 **122** Stars - Kim Chang Saeng

왜 〈저기〉인가? - 진수영 **128** Why There - Soo Young Chin

출품작품 **156** Works in the Exhibition

프로필 **168** Profiles

작품대여 **175** Lenders to the Exhibition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176** Gwangju Biennale Foundation



Koreans in the Diaspora  
디아스포라 속의 한국인

Overseas Korean Foundation Chairman & CEO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Byoung Hyon Kwon  
권병현



I sincerely congratulate Gwangju Biennale on gaining global popularity as  
해를 거듭할 수록 국제적인 예술행사로 세계적 명성을 더해 가는 2002 광주 비엔날레

an international art venue.

과 더불어 힘을 축하드립니다.

With more than 6 million ethnic Koreans living in 150 countries overseas,  
전세계 150여개국, 600만 재외동포 사회는 이민초기에 겪었던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the undeniable reality is that many Koreans have overcome hardship at the initial stage  
전고고 거주국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활동하고 있으며, 예술분야에 있어서도 독특한 작품세계로

of settlement as immigrants in foreign countries and have joined the main stream of the  
주요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best country.

It is highly meaningful for Gwangju biennale 2002 to allocate one of their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2002 광주 비엔날레가 프로젝트 하나를 (프로젝트2, 저가: 이산

projects (Project 2, THERE : Sites of Korean Diaspora) to the concerns of the overseas  
의 광 재외동포에 할애한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젊고 역량 있는 해외동포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더불어

Koreans. It is very significant and valuable to seek our ethnic identity in order to find an  
의 한국이산과 관련된 영화 상영, 전시기간 중 전시주제와 관련된 학자 및 작가들과의 심포지엄을 통해

answer to the theme, "Who I am." This exhibition can promote our culture through the  
의 재외동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우리의 정체성의 모색

presentation of documentary film, symposium, and exhibition of overseas Korean artists'  
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지금 이순간 매우 적절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work.

The Overseas Korean Foundation endeavors to solidify the campaign for  
재외동포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재단 역시 문화의 중요성이라는 시대

ethnic identity and to stabilize our global common ground. We work to achieve this by  
의 프로젝트 맞추어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하고도 유익한 문화사업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민족정체성을 확

promoting the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of our culture through our dynamic and  
영역에서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positive cultural projects in order to make balanced cultural exchanges, and to promote

the prosperity of Koreans overseas.

Again, on behalf of six million Koreans abroad and the Overseas Korean  
600만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재단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2002 광주 비엔날레의 성공을

Foundation staff, we wish much success for the 2002 Gwangju Biennale.

기심으로 기원합니다.



Gwangju Biennale 2002, Project 2  
2002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 2

Art Director Wan Kyung Sung  
예술감독 성원경



Today, as we reach out to the world, the world is upon us, closer than ever.  
오늘날 우리는 전세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전세계는 우리로 들어오고 있다. 전세계

We who have peculiar faces, voices, and skin color, are living in the complex world. This  
은은 그들대로 제 각각의 얼굴과 목소리, 색깔을 지닌 채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바로 그렇기  
gives us a good reason to take a moment to inquire and speculate our existence.  
때문에 오히려 자기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사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How is the process of the inquiry and the speculation present in 2002  
자신에 대한 탐구와 성찰의 프로세스가 2002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Gwangju Biennale? Project 2: "THERE: Sites of Korean Diaspora" offers insights into the  
프로젝트 2 (저기: 이산의 땅 THERE: Sites of Korean Diaspora)는 미국 LA, 브라질 상파울로, 일  
unique qualities of the broader global history and dynamics of the Korean diaspora while  
한국어, 중국 연변,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 세계 각지로 흩어져 뿌리내린 한국인들의 어주사를 다듬으  
at the same time focusing on five key cities of significant Korean diasporic population  
이동사, 그들의 2, 3세 후손 작가들의 작업에 담긴 다양한 인류학적 삶의 형식들과 혼성적 정체성을  
that are also diverse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Los Angeles (U.S.), São Paulo (Brazil),  
로스앤젤레스,  
Astana (Kazakhstan), Yanji (China), and Osaka (Japan).

In a sense, Koreans who reside outside of Korea reflect other aspects of  
어떠한 이유에서건 해외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은 세계 속에 던져진 또 하나의 나일 수  
ourselves. We see ourselves through them. In other words, Project 2 offers this dynamic:  
있다. 나는 그들을 통해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 내가 그들을 본다는 일, 그리고 그들을  
seeing them and seeing ourselves through them.  
통해 나를 본다는 일, 이 두 가지 의미 있는 일이 프로젝트 2에서 실현된다.

Giving the project to Yong Soon Min who is the chair of studio art  
이 전시를 낳는 산파역이 캘리포니아대학교의 민영순교수에게 돌아간 것은 너무나 당연  
department at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o conceive, design, and curate, is  
은 일이고 또한 뜻깊은 일이다. 민교수는 미국내의 아시아계 디아스포라의 대표적 작가이자, 교육자, 큐  
meaningful and inevitable. As an artist, educator, and curator who is herself a diasporic  
큐레이터로서 지난 20여 년간 이 전시의 주제에 가장 걸맞는 지적, 창조적 활동을 몸소 실천해왔고 비판  
subject, she has been examining the Korean diasporic experience and history through its  
한국에서 한국과 미국의 미술을 잇는 중요한 교량이었다.  
cultural production for the many years, at the same time that she has also been involved  
in efforts to build bridges between the U.S. and Korea in terms of contemporary art.

Project 2 has been produced with information and materials attained from  
이 전시는 지구촌 여러 곳의 현지 조사 여행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학술조  
and interviews in the field and academic research. This significant cultural production will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그 결과는 전시회뿐만 아니라 학술심포지엄, 영화프로그램, 도록 글 등  
be presented in the exhibition, film/video program, catalog and a symposium. On behalf  
에 소개할 것이다. 이 어려운 과정을 조직하며 전시기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큐레이터 민교수에게,  
of the Gwangju Biennale, I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curator Yong Soon Min for her  
그리고 행력을 아끼지 않으신 그의 많은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standing work on completing this difficult mission as well as her crew who have not  
shared their efforts.







Certain Latitudes & Art

Certain Latitudes Yong Soon Min  
어떤 지대 민영순

Five sites, some 15 flights and major  
다섯 개의 자점, 약 15번의 비행과 주요 위

latitudinal (and longitudinal) shifts. Beginning at the Tropic of Capricorn with the  
도상(그리고 경도상)의 이동들. 우리는 한국인들이 장악한 의류 지역, 남회귀선상의 상파울

Korean-dominated garment districts of Bom Retiro and Bras in São Paulo; north to  
로의 볼 레티로(Bom Retiro)와 브라스(Bras)에서 시작해, 북위 43도상의 그림같이 아름답

the 43rd parallel Soviet-planned city of Almaty nestled beneath the picturesque  
게 눈 덮인 티엔산(Tien Shan) 산맥 아래에 등지를 뜬 구소련의 계획 도시인 알마티로,

snowcapped Tien Shan mountains; below the 35th parallel to the bustling Korean  
35도로 내려와서 오사카 철로의 소음 아래 한국 가게들이 북적대며 늘어선 골목골목으로,

business-lined alleys of Osaka under the din of a train line; back on the 43rd  
다시 다채로운 이중언어 표지가 도처에서 눈에 띄는 43도상의 활기찬 연결시로, 최종적으

parallel to the lively city of Yanji with ubiquitous colorful, bilingual signage; and  
로 34도상, 로스엔젤레스의 한인타운의 불규칙하게 뻗어나 있는 다인종 거리를 가로질러





Viktor Ivanovich An 빅토르 안, *Reminiscence* 추억, 1996, Photography, 24" x 20"



last but not least at the 34th parallel, driving through the sprawling multi-ethnic  
운전했다. 풍성한 이미지들의 프리즘으로 비춰보면, 이 지점들은 큐레이터인 나 자신과, 인

streets of Koreatown of Los Angeles. From a bountiful prism of images, these were  
류학자, 영화감독, 그리고 사진작가로 구성된 리서치팀이 기록한, 종류를 거친 몇몇 장소/

some of the distilled sights/sites recorded by a research team consisting of myself  
지점들이었다. (왜 이 다섯 지역이 선정되었는지와 그 사회역사적, 인류 통계학적 정보에

as curator, an anthropologist, a filmmaker and a photographer-assistant. (Refer to  
대해서는 진수영의 에세이를 참조하길 바란다. 덧붙여, 한국 이산에 대한 역사 연대기가,

Soo Young Chin's essay for why these five sites were selected and their socio-  
남북한뿐만 아니라 그 다섯 지역의 역사 속 의미심장한 사건들을 추적하며 이 도록 속에

historic and demographic information. Additionally, a diasporic timeline runs  
포함되어 있다. [간단하게 나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지칭

throughout the catalog that tracks the significant events in the histories of the five  
한다] 도록에는 각각의 다섯 지역 출신 기고자들의 글이 실려있다.

sites as well as of North and South Korea. [For simplicity, I refer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North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South

Korea.] The catalog also includes writings by contributors from each of these five

sites.)

Our whirlwind research travel was  
빠듯한 일정에 쫓겨 진행된 우리의 리서치

undeniably exhilarating and exhausting. The greatest challenge in such feverish  
여행은 더할 나위 없이 재미있었지만 동시에 상당한 체력을 요구했다. 그토록 험겁게 국경

border crossings is the inevitable challenges of linguistic and cultural translations.  
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은 언어적 문화적 전환이라는 피할 수 없는 함

Frequently, since I have only English fluency, at each site I needed at least two sets  
정이었다. 나는 영어만 할 수 있었으므로, 종종 각 지역에서 적어도 두 쌍의 통역자들 - 포

of translators-one for Portuguese to Korean and another for Korean to English; the  
르투갈어/한국어 한 명, 한국어/영어 한 명 - 을 필요로 했다.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그리고

same would be the case with Russian to Korean to English or from Japanese to  
다시 영어로, 혹은 일본어를 한국어로 그리고 다시 영어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다. 알마티

Korean to English. In Almaty and Japan, we fou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even  
와 일본에서 한국어가 사용될 때조차도, 한국어가 외국어는 아닐지라도 제 2언어인 사람들





Seung-yeon Song 세르게이 송, *Puppets* 인형, 1999-2000, Papier-mâché/Installation





when Korean was spoken due to unfamiliar dialects and accents or the uneven or 이 갖는 어색한 억양이나 문법상의 결함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발견했다.

faulty grammar of those for whom Korean is a second, if not foreign language.

Our trip vividly reinforced the fact that 우리의 여행은, 전지구적인 이주가 20세기

global migration has reached unprecedented levels since the mid twentieth 중반 이후로 전례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과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의 삶이 디아스포라

century and that the lives of people everywhere have been radically changed by 의 경험에 의해 급속도로 변화해왔다는 사실을 생생히 증명했다. 한국인들은 전체 인구에

the experience of diaspora. Korean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is globalized 비해 네 번째로 큰 이산 그룹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전지구적 현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phenomenon as they constitute the fourth largest diasporic group relative to the 을 한다. 거의 6백만의 한국인들이 세계 서로 다른 160개국에서 살고 있다고 추정된다.

size of the population. It is estimated that nearly 6 million Koreans live in 160

different countries of the world.

This project's aim is to generate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제 막 시작해서 성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the nascent yet growing body of research and 장하고 있는 한국의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디아스포라 현상 일반에 관해 이루어져 온 일련

discourse that has developed about the Korean diaspora, and about diaspora in 의 조사연구와 담론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한국적

general. The project is unprecedented in bringing together emergent cultural 디아스포라로부터 나오는 신생 문화적 정보를 한데 묶고 그 지리학적 경계를 넓히는 데 있

formations from the Korean diaspora, broadening its geographic margins. In 어서 이전에는 없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특정 디아스포라적 전망을 제시하고,

doing so, it presents a particular diasporic perspective and its overall provisional 전체적으로 잠정적이고 높은 자질을 갖춘 그 본질이 크고 분명하게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and highly qualified nature need to be noted loud and clear. The fact that the 리서치팀이 다섯 지역 중의 하나인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의식적이면

research team is based in Los Angeles, one of the five sites, obviously privileges 서도 특히 무의식적인 면에서 이 지역에 분명히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이 프로젝

this site in both conscious and especially unconscious ways. Also, the fact that this 트 전시가 주로 남한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한민국에 의해 지원을 받고 대한민국





Susan Choi 최수경, *Orientalism* 오리엔탈리즘, 2001, Photography, 20" x 20"



project is sponsored by and held in South Korea for a predominantly South Korean  
에서 열린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는 이 두

audience also exerts undeniable effects. This project then has to be interpreted  
개의 지배적인 받침대, 각각에 따라다니는 모든 사항들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비록 전시

within these two dominant brackets, that of the U.S and South Korea with all the  
의 제목인 "거기"가 이 두 특정 유리한 지점 여기에 비추어 분명 굴절되긴 하지만, 그 의도

attendant baggage beholden to each. Although the title of the exhibition, "THERE"  
는 장소나 입지에 대한 하나의 고정된 관념에 반대되는 유동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지,

is no doubt inflected with the HERE of these two particular vantage points, its  
디아스포라가 고려되거나 위치될 어떠한 지배적이고 유리한 지점을 가진 것이 아니다.

intention is to suggest fluidity as opposed to a fixed notion of place or location,

with no overarching vantage point from which the diaspora is to be considered or

positioned.

This suggested fluidity of location also  
여기서 장소적 유동성을 제시한 것은 기원

aims to extricate the notion of authenticity that is problematically tied to an origin  
과 국가와 흔히 연관지워지는 진정성(authenticity)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and in most cases to a nation. Prevalent concepts associated with diaspora such as  
유배, 전위나 이탈과 같이 디아스포라와 연관되는 지배적인 개념들은 기원과 출신을 관련

exile, dislocation or displacement perpetuate this linkage of authenticity with  
짓는 것을 영속화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 혹은 기원(적인 것)의 진정성과 총체

origin, implying a sense of separation from what is considered to be the real, or  
성으로부터의 분리감을 암시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전범위의 디아

from the authenticity and wholeness of the origin(al). This may be true in some  
스포라적 경험을 아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 나라를 떠난 많은 사람들의 결정은 자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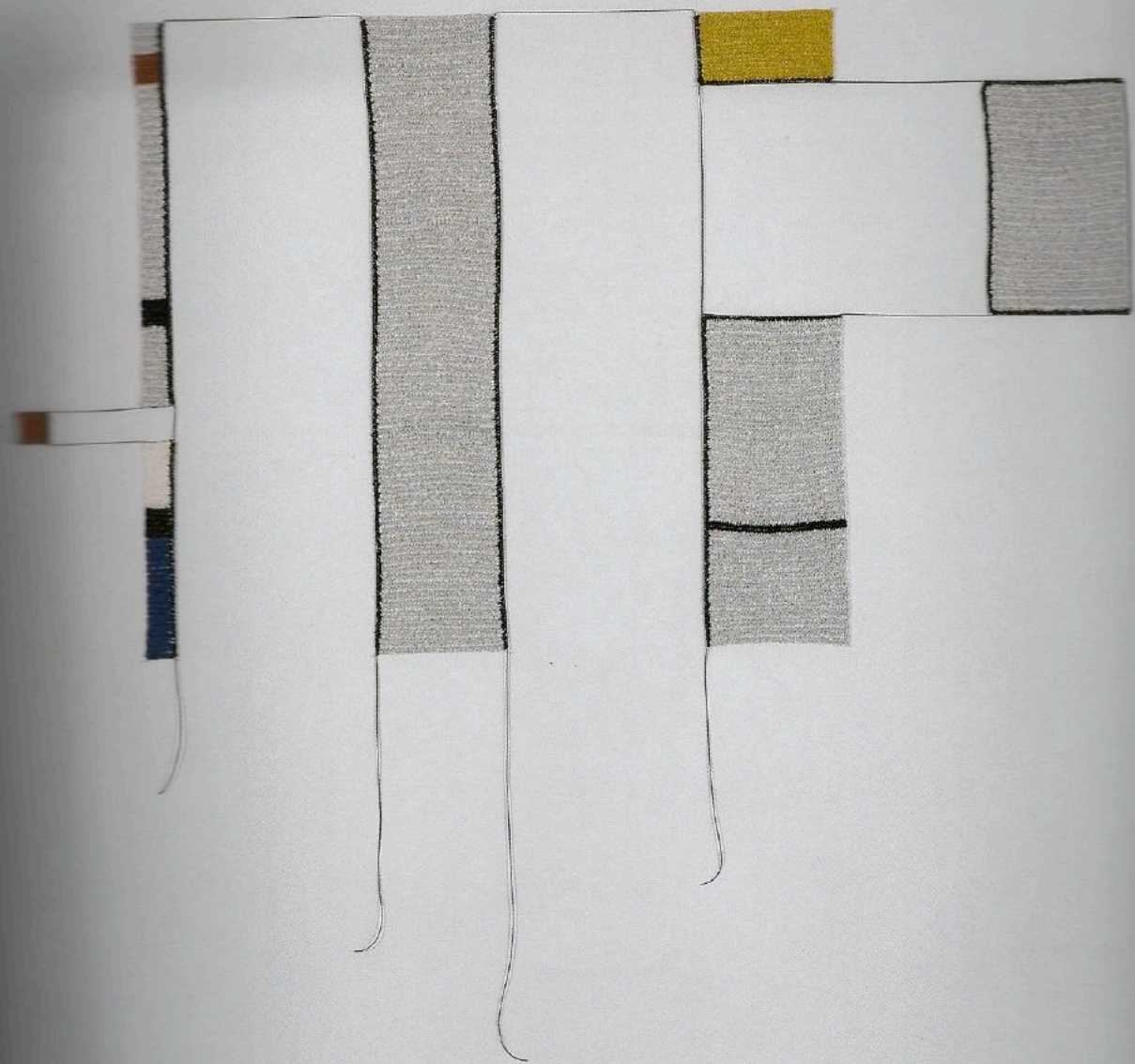
respect but it hardly encompasses the full range of diasporic experience. For many  
적인 것이었고, 하나의 선택이었다. 돌아오려는 욕구의 어떠한 표현도 우리가 만난 이들 사

the decision to leave was voluntary, and a choice. No expressions of desire for  
이에서는 표출되지 않았다. 많은 디아스포라적 주제들에 관해, 그들이 갖는 이탈감은 본국

return were expressed among those we met. For many diasporic subjects, their  
으로부터가 아닌, 전위된 역사와 문화라는 좀더 일반적인 느낌이었다. 그렇듯이, 그들은 어

sense of displacement is not from a nation of origin but from a more general sense  
이에 있든지 '본국으로 돌아올 때조차도 소속감에 대해 '반쯤 집에 있고' 양면적인 감정을





Seong Chun 천성임, *Futher/More 139* 멀리/더 139, 2000, Paper Crochet Sculpture, 64" x 45"



of dislocated history and culture. As such, they feel "half home" and ambivalent  
느낀다.

about their sense of belonging wherever they are, even when they return to the  
nation of "origin."

The problematics of origin are  
기원과 관련한 복잡한 여러 문제들은 한국

singularly acute in regard to Korea because of its division. If Freud's theories of  
과 관련해서 분단 상황 때문에 특히 첨예해진다. 만약 애도와 멜랑콜리라는 프로이트의 이

mourning and melancholia can be applied to analyze this historical condition, it  
문들이 이 역사적 상황을 분석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면, 한국과 한국인들은 심적으로 전체

can be posited that Korea and Koreans are psychically stuck in their grief over the  
성을 잃은 데 대해 슬픔에 빠져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의 건국 신화

loss of wholeness. Korea's foundational myth of a homogenous people cannot be  
는 분단에 의해 화해될 수 없고, 이러한 갈등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그칠 줄 모

reconciled by their division and this contradiction gives rise to a melancholic  
르고 대체도 불가능한' 멜랑콜리한 상황을 발생시킨다. 나아가 그러한 멜랑콜리는 상호 지

condition that is according to Freud "interminable in nature and refuses  
속적인 주기를 생성함으로써 상실감을 더해가게 된다.

substitution." Furthermore, the melancholic feeds on its loss, creating a mutually  
perpetuating cycle.

Nowhere in the Korean diaspora is this  
한국인의 디아스포라가 겪는 이렇게 뒤얽힌

entangled condition more intense or poignant than in Japan, in the belly of the  
상황은 예전의 식민주의 괴물의 원흉인 일본에서 가장 심하고도 첨예하다. 많은 사람들은

former colonizing beast, so to speak. Many would assert that persistent colonial  
지속적인 식민주의 정책이 미국의 시민권 이전 시기의 짐 크로우(Jim Crow) 정책을 연상

policies still maintain a stratified social system reminiscent of the Jim Crow  
시키는, 계층화된 사회 체제를 여전히 지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policies of the pre-Civil Right era in the U.S. In this untenable context, many  
맥락에서, 한국인들은 북이나 남과 연결하는 등 어딘가 다른 곳과 동맹을 모색하여 결과적

Koreans here have projected allegiance elsewhere, either affiliating with the North  
으로 그 자체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흥미롭게도, 북한과 스스로를 연관시키는 사람들의 대





Y. David Chung 데이비드 정, *Stripmall (Detail)* 스트립몰, 2001, Multi Media Room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or the South, resulting in their own division. Curiously, most of those who align  
부분은 원래 남한 출신이었다. 많은 디아스포라 주체들은 하나의 상상 속의 전체인 통일된

themselves with North Korea were originally from the South. Many diasporic  
한국을 자신들의 고국으로 마음에 그린다. 다른 지역의 한국인들은 다양한 이주의 상황에

subjects envision an imaginary whole, a unified Korea as their homeland. Other  
있어서, 원래 북한 출신이지만 한국 전쟁 후에는 남한에 잠시 정착했던 가족을 가진 상파울

Koreans are multiply displaced, such as the Korean from São Paulo whose family  
로의 한 한국인이거나, 혹은 러시아 동부 해안선으로부터 강제 이주당한 카자흐스탄의 한국인

originated from what is now North Korea and who briefly settled in South Korea  
도 있으며 이들과 다른 사람들의 경우, 근원의 문제는 복잡하다. 많은 고려 사람 (카자흐스

after the Korean War; or the Korean in Kazakhstan who was forcibly relocated  
탄의 한국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자기를 일컫는 용어) 들은 그들의 고향 (고향을 일컫는 한

there from the Russian eastern seaboard; for these and others, the question of  
국말)을 한국이 아닌, 블라디보스토크로 생각한다.

origin is complicated. Many Koryosaram (self identified term used by Koreans in

Kazakhstan) consider their gohyang (Korean term for hometown) to be

Vladivostok, not Korea.

Questions that lie at the heart of this  
이 프로젝트의 근저에 있는 질문들은 누가,

project are not whether someone, for example, who is a fourth generation  
예를 들어 고려 사람의 4대 손이 한국인이거나 카자흐인이거나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

Koryosaram is Korean or Kazakh, but how this subject is Korean or Kazakh and by  
여 한국인이거나 카자흐인인가이며, 나아가서는 어떻게 예술작품이 그들의 주체성을 반영하

extention, how the artwork reflects their subjectivity. Identity formation is  
는가이다. 정체성 형성은 끝없이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이다. 우리가 이 여행에서 만난 모든

endlessly varied and complex. Every person we met on this trip, even those who  
사람,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그들의 현재 사는 지역과 고도로 동화되어 보이는 사람들조차

spoke no Korean and seemed highly assimilated in their present locale, identified  
도, 자신들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유일한 예외는 80-90퍼센트의 한국인들이 일

themselves as Korean. The only exception may be in Japan where an estimated  
본인 신분으로 살아가려는 일본에서일 것이다. 본인의 민족성을 부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80-90 percent of Koreans try to pass for Japanese. Denial of one's ethnicity is but  
상황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수많은 정체성 작용의 한 극단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Young Chung 정영, *In Ecstasy* 황홀경, 2001, Type C Print, 40' x 30"



one extreme in the myriad play of identities in adapting to different conditions. 그들이 정착한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한국인이 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해 왔다 "우리는 실제로 Many have found new ways to be Korean in the different places where they are 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Y. 데이비드 정은 말한 settled. "We are actually creating new cultures that did not exist before," according 다. 디아스포라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특정 장소는 고향이 to artist Y David Chung. For many Koreans in the diaspora, home has become any 되었으며, 이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국가 밖이 아닌 자신의 집안이나 확장된 인척 외부에서 place where one's family resides such that the real concern is the prospect of 거주하는 것의 측면이다. 중국 학자인 아이화 옹(Aihwa Ong)이 이론화한 중국의 초국가적 dwelling not outside the nation but outside one's clan or extended kin. Akin to the 인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한국적) 주제성은 가족과 관련해서는 고도로 지역화되어 있으면 Chinese transnational networks theorized by the Chinese scholar Aihwa Ong, 서도, 특정 국가와 관련해서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ed) 된다." 우리는 제사 (한국의 조 "[Korean] subjectivity is at once deterritorialized in relation to a particular country, 상 숭배) 의 전통이 다소 변화를 겪었지만 모든 이산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어서, 이것 though highly localized in relation to family." We have found on our research trip 이 혈족관계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입증해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that the tradition of *gesah*, (korean ancestor worship) however modified, to be widely practiced in all the diasporic sites and that it serves as a testament to the enduring importance of kinship networks.

Writing about the Black British  
영국 흑인들의 디아스포라에 관해 쓰면서,

diaspora, Stuart Hall, the British cultural theorist hailed the critical role of cultural 영국 문화 이론가인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은 "민족 예술가로서의 위치에 의해 수용되지 production in producing " 'new ethnicities' that speak from a particular place, out 없으면서 특정 경험, 특정 문화, 특정 역사에서 나오는, 특정 지역으로부터 말하는 '새로운 of a particular history, out of a particular experience, a particular culture, without 민족성'을 생산해 내고 '차이점을 억누르기보다는 수용하는 문화적 정치학'에 의해 활기를 being contained by that position as 'ethnic artists'"...and creates an art informed 띠는 예술을 창조해 내는데 있어서의 문화 생산의 주요 역할을 주장했다. 식민 시대 이후인 by a "cultural politics that engages rather than suppresses difference...." The 현재에는, 중심과 주변 사이에서 그들 자신의 위치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갖고 혼성이라는





Byoung Ok Koh 교병옥, *Cotton Clock* 코튼 클럭, 2001, Sculpture



contemporary post-colonial era sees newly emergent cultural producers from the 새로운 이슈들과 오리엔탈리즘과 이국 정서라는 비평들을 알리는 디아스포라적 주변으로부터

diasporic margins who signal new issues of hybridity and critiques of orientalism 더 새롭게 출현하는 문화적 생산자들이 나타난다.

and exoticism with an acute attention to their own positionality between the centre and periphery.

The artists in this exhibition engage  
이 전시에서 예술가들은 매우 서로 다른 방

this artistic paradigm shift in vastly differing ways. In the process of curating, it 식들로 이 예술적 패러다임 변화를 다룬다. 내가 다섯 지역을 모두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작

became abundantly clear early on that if I wanted representation from all five sites, 품 선정을 위해 유연한 기준을 이용해야 함이 큐레이팅 과정에서 일찍이 분명해졌다. 나는 '

I would have to use flexibl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work. I could not rely on the 최첨단의' 작품을 찾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존할 수 없었다. 예술과 대중 문화 사이의 일반적

prevailing criteria of looking for 'cutting-edge' work. It became more pertinent to 인 구분을 가로지르는 가시적인 문화적 접근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졌다. 결과로 나

adopt a visual cultural approach that crosses the usual divide between art and 타나는 카톨릭적 혼합은, 눈에 띄게 다른 경향의 지시 대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대화에 참

popular culture. The resulting catholic mix reflects a truly heterogeneous global 여하는, 예술가들의 서로 이질적인 전지구적 예술의 실재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art reality of artists who are engaged in different dialogues with distinctly different 들이 좀더 전통적이거나 현대적인 장르에서 작업하는 반면에 미국과 상파울로에서 선정된

sets of references. For example, selected artists from the U.S. and São Paulo work 예술가들은 포스트 모던적 방식으로 작업한다. 전시에는, 인형이나 저널리즘 사진과 대중

in a contemporary post-modern mode while others work in more traditional or 문화와 더 가까운 부류에 있는 영화와 비디오 작품과 같은 작품들도 있다. (영화와 비디오

modernist genres. There are also pieces in the exhibition, such as puppets, 예술가들은, 폴이(Paul Yi)의 작품 소개를 보라.)

journalistic photography and film and video works that are more in league with

popular culture. (For film and video artists, see Paul Yi's introduction to his

selections.)





David Kory 데이비드 코티, *Untitled* 무제, 2000, Acrylic on Panel, 33" x 48"





Given my location in Los Angeles, and given  
로스앤젤레스는, 나의 주활동지를 고려할 때, 그리

the rapid increase and visibility within the last decade of highly talented artists of Korean  
고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한국적 유산을 지닌 지극히 재능 있는 예술가들의 급속한 증가와 가

heritage to choose from in the U.S., it was the easiest site to make selections. My only  
시성을 고려하면, 작가 선정할 하기에 가장 쉬운 장소였다. 나에게 유일한 제한은 남한의 예술 관

limitation was to select Korean American artists who were new to South Korean art  
객들에게 새로운 한국계 미국 예술가들을 선정하여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예술의 다

audiences. Otherwise, I gave myself free rein to select artwork that represented a  
양성을 대표할 작품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미국에서 선정된 열 명의 예술가들

diversity of artistic practices. Of the ten artists selected from the U.S., six live in the  
중에서 여섯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다. 미국의 최고 예술 학교들 중 많은 수가 이곳에 위치

Southern California area. Since many of the country's top art schools are located here and  
해 있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예술 시장 규모가 뉴욕과 비슷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술가들이 여

since the national art market in Los Angeles is next in importance to New York, it is to be  
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A에 기반을 두지 않은 예술가들의 경우, 조셉 박(Joseph Park)은

expected that a larger pool of artists are located here. As for the non-L.A. based artists,  
시애틀에 살지만 LA에 있는 저명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이진(Jin Lee)은 시카고에 기반을 두

Joseph Park lives in Seattle but exhibits in a prominent gallery in LA; Jin Lee is based in  
고 있으며, Y. 데이비드 정(Y. David Chung)은 워싱턴 D.C.에, 천성임(Seong Chun)은 뉴욕시





Jin Lee 이진, *Prairie* 대평원, 2000, Digital C Print, 12" x 83"

Chicago, Y. David Chung in Washington D.C. and Seong Chun in New York City. These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작가들은 국적이 서로 다른 부모님을 둔 작가 데이비드 코티(David

artists also represent a diverse range of diasporic experience, from the mixed parentage Kory)에서부터 이국에서 태어난 제니퍼 문(Jennifer Moon), 유학생 즉 대학생으로 LA에 와 열

artist David Kory to the American born Jennifer Moon, to Byoung Ok Koh, who came to 명의 미술가들 중 가장 최근 이민자에 속하는 고병옥(Byoung Ok Koh)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

LA as a *yu hak saeng*, or college student, and is the most recent immigrant of the ten 위의 디아스포라적인 경험을 보여준다.

artists.

As for my selection process in the other sites, I 다른 지역에서의 나의 선정 과정의 경우, 나는 매

relied on an array of contacts that I established before the all too brief site visits. In the 우 짧은 나의 지역 리서치 여행 전에 내가 알고 지내던 분들에 의존했다. 알마티와 연결의 경우,

case of Almaty and Yanji, these were mostly Korean community contacts. Although more 한국 지역사회와의 만남을 시도했다. 더 많은 작가들이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에 있긴 하지만,

artists are located in Tashkent, Uzbekistan, our research was focused on Almaty which 우리의 조사는 1937년에 한국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최초의 지역으로서의 역사적 중요

has historical importance as the initial site of the 1937 forced relocation of Koreans to 성을 가진 알마티에 집중되었고, 그 지역은 근방에서 한국 문화의 중심지로 남아 있다. 알마티에



Central Asia, and it remains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region. After meeting 기반을 둔 한 예술가 단체의 일원인 예술가들을 만난 후에, 나는 알마티 출신의 인형 제작

a number of artists who were part of an artists' organization based in Almaty. I자인 세르게이 마하일로비치 송(Sergei Mikhailovich Song)과, 알마티에서 직접 작품을

ended up selecting a puppet maker, Sergei Mikhailovich Song from Almaty and본 타쉬켄트에 기반을 둔 저널리즘 사진 작가인 빅토르 이바노비치 안(Viktor Ivanovich

Viktor Ivanovich, a journalistic photographer based in Tashkent whose works I sawAn)을 결국 선정하게 되었다. 그들의 작품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 두 작가는 중

in Almaty. Their works impressed me the most. These two are well known in the양 아시아 한국 사회 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으며 비공식적인 문화 대사로서 간주되고 있다.

Central Asian Korean community and are considered their unofficial cultural ambassadors.

From Yanji, which constitutes the 가장 오래 된 한국 이산 역사를 가진 연길

oldest Korean diaspora site, I selected two painters, Hee Man Suk, an octogenarian로부터, 나는 두 명의 작가, 중국에서 한국인 예술가들의 대부로 간주되는 80대의 석희만

who is regarded as the godfather of Korean artists in China, and Xianji Cui, 40 years과, 석희만보다 40살 아래이며 연길에서 태어나 자란 시앤제 쿠이(Xianji Cui)를 선정했다.

Suk's junior who was born and raised in Yanji. Suk has a complicated history of석희만은 한국, 일본 그리고 연변 사이의 복잡한 개인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청

migrations between Korea, Japan and Yanbian but considers Yanbian—where he년기를 보냈고 나중에 예술 경력을 쌓은 연변을 자신의 고향으로 여긴다. 한국 이름이 최헌

spent his youth and later established his artistic career—to be his home. Cui,기인 시앤제 쿠이는 베이징에서 중국 이름으로 1994년 이래로 직업작가 경력을 추구해 왔

whose Korean name is Choi Heun Gi, has been pursuing a professional career in다. 중국에서는 일본에서와 같은 눈에 띄는 차별은 없지만, 쿠이는 중국인인 척하는 것이

Beijing since 1994 where he goes by his professional Chinese name. Although중국 예술가들에 대한 상업적인 외국 예술 시장의 현행의 관심이라는 이득을 준다고 느낀

there is no overt discrimination in China like there is in Japan, Cui feels that다.

passing for Chinese gives him an advantage with the commercial foreign art

market's current interest in Chinese artists.





Wonju Lim 임원주, *Elysian Field* 엘리시안 필드, 2001,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In Yanji and Almaty, and to a lesser  
연길과 알마티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어

extent in Japan, most of the Korean artists were making traditional genre  
는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한국 예술가들이 풍경, 초상, 일상의 장면들을 그리는 전통적인 장

paintings of landscape, portraiture, and scenes of daily life. In China, I suspect that  
를 추구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그 거대한 땅이 코스모폴리탄 중심지들과 원거리의 지방

its vast size is another strong factor for the pronounced lag in cultural  
들 사이의 문화적 발전에 있어서의 현저한 지체현상의 또 다른 강한 요인이 아닌가 싶었다.

development between cosmopolitan centers and the distant provinces. Signs of  
지방 주요 대학 수준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변 대학의 예술 분과에서는 최근 커리큘

change were evident at the Yanbian University art department, the main  
럼에 사진과 디지털 디자인을 추가하는 등 변화의 조짐들이 명백했다. 그러나 대학에 속해

university level art program in the province, which recently added photography  
있는 현재 인정받는 예술가들 대부분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회화를 전공한다.

and digital design to its curriculum. At this time however, most of the established

artists who are affiliated with the university were painters nonetheless.

In finding artists of Korean ancestry in  
비록, 대부분의 경우, 특히 일본에서 주류

Japan and Brazil, some local contacts were helpful, although in most cases,  
예술 관계자들은 그를 사이에서 한국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일본과 브라질에

especially in Japan, mainstream art contacts had no knowledge of Korean artists in  
서 한국인 조상을 가진 예술가들을 찾는 데 있어서, 몇몇 지역 관계자들이 도움이 되었다.

their midst. This points to the extreme marginalization of Korean artists in these  
이는 이 지역들에서 한국 작가들이 극도로 주변화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브라질에서 리나

sites. In Brazil, one artist, Lina Kim was readily identified by both the mainstream  
킴(Lina Kim)이라는 작가는 크로스 오버로 성공한 사람으로 주류 예술 관계자들과 한국 사

art contacts and Korean community contacts as the crossover success. In a Korean  
회 관계자들 다에 의해 서슴없이 뛰어난 작가로 인정받았다. 거의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

community that is small enough such that most everyone knows everyone else,  
정도로 작은 한국 사회에서 그녀는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두고 브라질의 현

she is known to the community and yet she keeps her distance and has her feet  
대 예술 현장에 굳게 발을 딛고 서 있다. 그녀는 많은 주요 상업적 공공 기관에서 전시를





Jennifer Moon 제니퍼 문, *Facility 편의시설*, 2000,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firmly planted in the contemporary art scene of Brazil. She has exhibited at many  
 해 왔고 올해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선정되는 인정을 받았다. 상파울로 출신의 다른 한국인  
 of the major commercial and public institutions and has gained the recognition of  
 예술가인 정상원은 성공적인 상업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브라질 미술계에는 알려져  
 being selected for this year's São Paulo Bienal. The other Korean artist from São  
 있지 않다. 상파울로에서 태어난 리나와는 달리, 상원은 한국을 왔다갔다 이등한, 비교적 브  
 Paulo, Sang Won Sung has a successful commercial design business but is  
 라질에서는 신출내기로 상파울로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예술가인 아내와 함께 의류 지역인  
 unknown in the Brazilian art world. Unlike Lina who is a São Paulo native, Sang  
 북 리테로에서 스튜디오를 함께 쓰면서 한국계 예술가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Won is a relative newcomer to Brazil who after a back and forth movement from  
 Korea, is committed to staying in São Paulo. He, along with his artist wife share a  
 studio in Bom Ritiro, the garment district and participates in the activities of a  
 Korean artists' organization.

To represent the Osaka site, I chose  
 오사카 지역을 대표하기 위해, 나는 두 명

two independent artists and an artists' group, Areum, which in turn chose to  
 의 독립 작가들과 아룸(Areum)이라는 한 예술가 단체를 선정했는데, 이 단체를 다섯 명의  
 represent itself with works by five members. Collectively, these artists live vastly  
 구성원들의 작품을 통해 표현하기로 결정했다. 전체적으로 이 작가들은 일본에서 매우 다른  
 different lives in Japan. Areum (represented by Chae Jun, Fung Sok Ro, Il Nam Park,  
 생활을 한다. 아룸(채준, 로흥석, 박일남, 김성민, 김영숙으로 대표되는)은 오사카, 고베, 교  
 Sung Min Kim, Yong Suk Kim) is an impressively large artists' collective numbering  
 토와 도쿄 등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에 1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매우 큰 작  
 over 100 members who are spread throughout Japan with concentrations in the  
 가 단체이다. 이 단체는 1999년 조직되었으며 매우 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가진다. 기본적  
 major cities of Osaka, Kobe, Kyoto and Tokyo. The group has been in existence  
 으로 그들은 매년 단체전을 열고 있는데, 회원은 대학생에서부터 명예 퇴직한 교수에 이르  
 since 1999 and has a very efficient top-down management structure. Their primary  
 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북한과 관련되어 있거나 북한에 동조하는 조종련 출신  
 collective activity is holding an annual group exhibition. Members range in age  
 이다. 많은 회원들이, 도쿄 근교에 위치한 조선 대학교와 그와 연관된 사립 학교 교직원이





Joseph Park 조셉 박, *Summit 정점*, 2000, Oil on Canvas, 58" x 49"



from college students to emeritus professors. Most members are associated with  
다. 아름 작가들, 그들의 정체성과 예술적인 감수성과 정반대를 이루는 작가가 일본에서 태

the Chongryun community in Japan which continues to affiliate itself with or is  
어나 도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윤희창이다. 그가 한국어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일

sympathetic to North Korea. Many of its members teach in the network of private  
본인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윤희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비관용적인 사회적 태도

schools that culminate in the flagship Chosun University that is located in the  
에 대해 이미 잘 알려진 이유로, 자신의 한국 정체성에 너무 많은 강조점을 두는 것에 대해

suburbs of Tokyo. In complete contrast to these artists of Areum and their sense of  
조심스러워한다. 오사카의 세 번째 선택은 잘 알려진 일본인 작가인 요시코 시마다

identity and artistic sensibility is Yoon Hee Chang, who was born in Japan and is  
(Yoshiko Shimada)인데, 디아스포라라는 주제와 그녀의 프로젝트가 관련이 있어 이번 전

based in Tokyo. Although his use of his Korean name prevents him from  
시에 포함되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그녀의 개인전에서 내가 처음 본 그녀의 설치 미술

completely passing as Japanese, Hee Chang is nevertheless wary of too much  
(빠징코: 가족, 민족)은, 성차별 이슈들과 정신대(위안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계 일

emphasis being placed on his Korean identity for reasons already discussed about  
본 여성단체인 미리내의 창설자이자 한국인 페미니스트인 황보강자와의 합작으로 만들어졌

Japan's intolerant social attitudes. The third selection from Osaka is the well  
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인 예술가와 한인2세대 일본인 사이의 합작이라는 드문 예를 보여준

known Japanese artist, Yoshiko Shimada, included here because of the relevance  
다. 빠징코는, 일본내 빠징코 도박의 어마어마한 인기와 60퍼센트의 일본 빠징코 사업이 한

of her project to the diaspora theme. Her installation, "Pachinko: Family and  
국인들의 소유라는 사실 때문에, 일본에서의 한인 가족 역사에 대한 이 프로젝트에 적절한

Nation" which I first saw at her solo exhibition in Vancouver, Canada was made in  
시각적 모티프를 제공한다.

collaboration with Hwangbo Kangja, a Korean feminist and a founding member of

Mirine, a collective organization of Korean Japanese women that focuses on

discrimination issues and the Junshindae (Comfort Women) issue. This project

represents a rare instance of collaboration between a Japanese artist and a

second generation Korean Japanese. Pachinko is an apt visual motif for this project





Xianji Cui 최현거, *Yin Yang-No.5* 음양-No.5, 1999, Oil on Canvas, 55" x 71"



about Korean family histories in Japan because of the enormous popularity of this gambling game and the fact that about 60% of the Pachinko business in Japan is controlled by Koreans.

What is strikingly shared by four of the  
연길을 제외한 네 개의 지역에서 놀림게도

sites, excluding Yanji is the existence of well organized Korean artists' 공동되는 점은 한인 예술가 단체가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주류의 예술계와 마주

organizations. The role of the artists' organizations vis à vis the more mainstream 하는 한인 작가단체의 역할은 각국의 주류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 공동체의 위치에 대해 많

art world reveals a lot about the position of Korean communities in relation to the 은 것을 알려준다. 이 작가단체들은 미국 디아스포라 내에서 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mainstream of a respective country. These artist groups play a similar role that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거나 비수용적이었을 문화적 환경에

churches in the U.S. diaspora had and continue to have, albeit waning in their 서, 인식처와 지원 기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대규모 작가단체는

influence, in providing a haven and a support base in an otherwise alien or 상파울로, 카자흐스탄, 일본의 단체들보다는 한국작가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덜 지배적이

unreceptive cultural environment. The large artists' association in Los Angeles is 다. 연길에 그러한 단체가 없는 이유는 한국인을 위한 공식적인 정책이 이중언어주의와 이

less dominant an influence for Korean artists than its counterparts in São Paulo, 중문화적 태도를 장려하는 지역에서는 지배적인 인종 단체라는 사실(비록 이것이 주로 경제

Kazakhstan and Japan. The absence of such organizations in Yanji can be 적인 이유로 한국인들의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변하고는 있지만)에 연유한다.

attributed to the fact that Koreans constitute the dominant ethnic group in the

region (although this is changing with an increasing emigration of Koreans mostly

for economic reasons) in which the official policy promotes bi-lingualism and

bicultural attitudes.





Hee Man Suk 석희만, Title/Date Unidentified, Oil on Canvas, 24" x 20"



While there are differences in  
한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의 작품에 차이점

production from one site to another, it is revealing to consider some unexpected  
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작품 선정을 하는 동안 나타난 어떤 예상치 못했던 공통된 주제가  
common themes that have emerged across the overall selections.  
드러난다.

Landscape emerged as a significant  
풍경은 여섯 명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의미

trope in the works of six artists. Hee Man Suk and Xianji Cui both draw some of  
있는 수사로서 등장했다. 석희만과 최현기 둘 다 연변 시골로부터 영감을 끌어왔다. 자신이

their inspiration from the Yanbian countryside. Relying on his memory his native  
태어난 연변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면서, 최현기의 간결한 단색 팔레트를 이용한 대담한 색

Yanbian, Cui's bold applications of paint with an austere monochromatic palette  
채 사용은 겨울 풍경의 고요한 정적의 느낌을 추상적으로 유발시킨다. 석희만은 뛰어난 색

abstractly evoke a sense of quiet stillness of its wintry scenes. Hee Man Suk is  
채적인 수식으로 지역 특유의 풍경을 묘사하는 그림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전시에서

known for his paintings that describe the local scenery with great painterly  
의 작품은 그의 전성기의 그림들 대다수만큼이나 대담하고 신선한 근래의 정물화들이 대부분

flourish. The works in this exhibition however are mostly recent still lifes which are  
본이다. 고베의 박일남이 그린 추상화들은 그의 집을 파괴시키고 그의 생명을 앗아갈 뻔했

as bold and fresh as many of his paintings from his most prolific years. The abstract  
던 1995년의 처참했던 지진의 영향에 대한 시리즈에서 온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예술가인

canvases by Il Nam Park of Kobe are from a seri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데이비드 코티의 풍경화들의 밝고 콘트라스트가 적은 색조는 외부인들에게는 초현실적으로

devastating earthquake of 1995 that destroyed his house and nearly took his life.  
과장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LA인들에게는 익숙하다. 코티는 잘 섞은 도료나 꼭 들어맞

The high-keyed coloration of Los Angeles artist David Kory's landscapes may  
는 순수한 색채 얼룩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도시 불빛의 매력이 손에 닿을 듯한 이 스모

seem surreally over-the-top to outsiders but we Angelenos know better. Kory  
그 집은 도시의 풍경의 번덕스러운 침울함(과 마술)을 충실히 담아낸다. 임원주도 도시의 불

faithfully captures with an economy of blended washes or just the right saturated  
빛에 매혹되어 있지만, 그녀의 경우 진보와 근대성을 위해 정신적 가치를 파는 파우스트적

blot of colors the fickle moodiness (and magic) of this smog-enhanced cityscape,  
인 약속을 하는 것은 산업의 햇불들이다. 그녀의 멀티미디어 설치 미술 〈엘리시안 필드

where the enchantment of city lights are never beyond reach. Wonju Lim is also  
Elysian Field〉는, 모듈식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플라스틱 건물들과, 만들어진 표면의 복합





Lina Kim 리나 김, *Bacterium* 박테리아, 2001,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fascinated by city lights, but in her case, it's the beacons of industry that make  
성에 의해 분해되는 다른 '진짜' 건물들의 투사된 이미지를 병치한다. 이 설치물이 언뜻

Faustian promise of progress and modernity. Her multi-media installation, "Elysian  
현재적 건축물에 대한 유혹적인 오마주로 보이는 반면, 그것은 또한 기술과 물질 사이의 공

Fields," juxtaposes modular, Bauhausian plastic building blocks with projected  
생하면서도 근친상간적인 관계에 대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유발시킨다. 로버트 벤츄리

images of other 'real' buildings that are fragmented by the complexity of the built  
(Robert Venturi) <라스베가스 읽기 Reading Las Vegas>를 다시 읽는 것이 여기서는

surface. While the installation seems at once to be a seductive homage to  
여러모로 편리할지 모른다. 이와는 확실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작은 우리를 도시의 불빛으

modernist architecture, it also provokes unsettling questions about the symbiotic  
로부터 멀리 멀리 데려가서 중서부 평원의 광대한 들판으로 이끈다. 그녀는, 시간에 고정된

and incestuous relationship between artifice and substance. A re-read of Robert  
장소로서가 아닌 시간을 뛰어넘어 펼쳐놓는 경험으로서의 풍경을 개념화하는, 극도로 넓은

Venturi's Reading Las Vegas might come in handy here. In stark contrast, Jin Lee  
파노라마를 창조하기 위해 디지털 방식을 사용한다. 그녀의 작품들 또한 회화와 사진, 사실

takes us far, far away from the citylights to the vast fields of the Midwest prairie.  
과 허구 사이의 경계를 흐려놓는다.

She uses digital processes to create extremely wide panoramas that conceptualize

landscape not as a fixed place in time but as an experience that unfolds over time.

These landscapes also blur the distinctions between painting and photography,

fact and fiction.

Another grouping of artists play upon  
또 다른 작가군은 추상의 개념들을 다룬다.

ideas of abstraction. Manhattan based artist Seong Chun's labor-intensive and  
맨해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천성임의 종이, 텍스트, 실로 만들어진 노동 집약적이고 복잡

intricately crocheted sculptures made of paper, text and thread are paradoxically  
한 코바늘뜨기 조각들은, 역설적으로 공예에 기초해 있으면서도 피에트 몬드리안(Piet

craft-based and "quote" high modernist icons such as Piet Mondrian. The  
Mondrian)과 같은 고도로 현대적인 아이콘들을 "인용"한다. 몬드리안식 구성의 파편화된

fragmented re-arrangement of a Mondrian composition in "Further/More"  
재배치는 "멀리/더 139 (Further/More 139)"에서 즉흥적인 유머러스함과 의 예상치 못했던





Sang Won Sung 성상원, *Zapping* 채널 바꾸기, 2002, Sculpture



engenders unexpected figurative associations with an offhand humorous aside. 구상적 연관성을 낳는다. 이들과 다른 작품들은 재료, 공정과 출전의 잡동사니에 있어서 그

These and other works evince her disciplined fearlessness in the pastiche of 녀의 단련된 용감무쌍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윤희창은 유사한 영역을 파고들어가고 있는 듯

materials, process and references. While it may appear that Hee Chang Yoon mines 이 보이면서도, 그의 작업은 훨씬 더 형식주의에 대해 경건한 태도를 취한다. 모퉁이 받침

a similar terrain, his works adopt a far more reverential attitude towards formalism. 대(bracket)나 선반과 같은 일반적 형태와 닮은, 일면 단순해 보이는 그의 점토 작품들은,

Yoon's deceptively simple clay pieces that resemble generic forms such as a corner 찬찬히 그리고 사려 깊게 이해하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주위의 건축 공간을

bracket or a shelf, strategically activate the surrounding architectural space in such 활성화시킨다. 고병욱의 개념적인 조각들은 친숙한 일상적인 사물들을 교묘하게 변형시킨

a way as to demand a slow and deliberate apprehension. Byoung Ok Koh's 다. 몇몇 형태의 상호 작용성이나 일시성이, 추가되는 핵심적 요소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conceptual sculptures slyly transform familiar everyday objects. Temporality or 의미를 생기게 하면서도 '가장 의미 없는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some form of interactivity is an added critical factor. Above all, he aims to create

the "best meaningless thing" that nevertheless accrues meaning.

Issues of gender and sexuality are often 이동과 인종차별주의에 직면하여 남성 권위

sidelined in the diaspora in which masculine authority and heteronormativity are 주의와 이성에 기준이 떠받들어지고 재단언되는 디아스포라에서는, 젠더(사회적 성)와 섹슈

reinforced and reasserted in the face of displacement and racism. However, in the 얼리테에 관한 문제들이 종종 방관된다. 그렇지만 김영숙, 정영, 수잔 초이(Susan Choi),

works of Yong Suk Kim, Young Chung, Susan Choi and Yoshiko Shimada they take 요시코 시마다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중심 무대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들 작업

center stage. Much of their work is also engaged in various readings "against the 의 상당 부분은 지배적인 문화적 젠더와 성적 코드의 '기질에 맞지 않는' 다양한 읽기를 끝

grain" of dominant cultural gender and sexual codes. Yong Suk Kim is the 여들인다. 김영숙은 아룸에서 대표 선정된 5명의 작가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 그녀는,

youngest of the five artists selected to represent Areum. She paints her large 잡지에서 오려낸 마릴린 먼로나 비오크 같은 대중 스타들의 사진들로 꾸며진 도쿄의 작은





Jun Chae 채준, *Leaving Home* 고향을 버리고, 1997, Oil on Canvas, 91 x 117cm



canvases in a tiny apartment in Tokyo decorated with posters of pop stars such as 아파트에서 자신의 커다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 그녀의 실물크기의 남성 누드화들은 보

Bjork and Marilyn Monroe. Her life-size depictions of naked male figures are at 는 즉시 임상적인 측면에서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에로틱한 측면을 띤다. 수잔 초

once clinically detailed yet erotically charged. Susan Choi uses her own body as a 이는 자신의 신체를 서술의 원천으로 사용하여 대중 문화, 특히 주요한 세계시장 수출품이

narrative source to critique dominant/conventional notions of sexuality in popular 된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일본 대중 문화에서 지배적/관습적인 성관념을 비판한다. 그녀는 또

culture, in particular, Japanese pop cultures of manga and animé that have 한 18세기 유럽의 오리엔탈리즘적 회화들이 지배와 예속의 작용을 의식(儀式)화하는 성적

become major globalized exports. Choi is also represented in the exhibition with a 환상의 배경 역할을 하는 사진 시리즈로 이 전시에 참가한다. 수잔 초이는 시각적 쾌락이라

photo series in which 18th century European orientalist paintings serve as a 는 본성에 대한 단순한 전제들을 휘저으면서, 포르노그라피로부터 예술을 분리시키는 가는

backdrop for sexual fantasies that ritualize the play of dominance and servitude. 줄을 발끝으로 건드린다. 정영은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비디오와 설치, 사진 작업을 통해 다

Choi toes a fine line separating art from pornography, troubling easy assumptions 양하게 완곡한 방식으로 사회 정치적 주제들을 통합시킨다. 이 전시에 포함된 최근의 사진

about the gendered nature of visual pleasure. Young Chung is a versatile artist 들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국가의 특정 공포와 욕망을 검증하는 수단으로서의 신체를 재현

whose works in video, installation and photography incorporate socio-political 하는데 집중하는 고도로 연출된 스튜디오 이미지들이다. 그의 작품은 상스럽다거나, 소외되

themes in various disarming ways. Recent photographs included in the exhibition 었거나 '다르다'고 여겨지는 것이 성애적인 욕망이나 성적 쾌락의 표현과 복잡하게 얽혀서

are highly staged studio images that center on the representation of the body as a 관련되어 있거나 그 속에 구현되어 있음을 제시한다. 메이플 드도프(Mapplethorpe)처럼

vehicle for the examination of certain fears and desires, not just of the individual 그의 이미지들 중 몇몇은 매혹적으로 미묘한 반면, 다른 이미지들은 상징적으로 둔탁하다

but of the body politic. His works would suggest that what is considered *object*, 요시코 시마다의 <빠징코: 가족, 국가>에도 사진 - 이 경우,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전기들을

alien or the "other" are inextricably linked or embodied in expressions of eroticized 제공하는 미리내의 한인계 페미니스트 회원들의 가족 앨범에서 나온 스냅 사진 - 이 또한

desire or sexual pleasure. Like Mapplethorpe, some of his images are seductively 된다. 이야기들은, 1923년의 관동대지진 당시 경찰로 근무하는 동안 한국인들을 처형했다

subtle while other are emblematically blunt. Yoshiko Shimada's "Pachinko: Family 고 추측되는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요시코의 멀티미디어 서술을 배경으로 한다. 문해능력





Sung Min Kim 김성민, *White Shipment* 흰 적하, 1999, Oil on Canvas, 97 x 162cm



Nation" also incorporates photography-in this case, snapshots from family albums 나 회피되었다가 이렇게 재구성되고 생겨나는 과거의 역사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역사를 거스르기'라는 표현을 생각나게 한다.

historicized. The stories are set against Yoshiko's multi-media narrative of her grandfather who she speculates had persecuted Koreans during his service as a policeman during the 1923 Great Earthquake in Tokyo. These reconstructed and gendered histories of a past that were buried or evaded recall Walter Benjamin's expression, "to brush history against the grain."

The final grouping of eleven artists  
마지막으로 배치한 11명의 작가들은 역사와

share a similar interest in history and socio-political issues. Joo Young Kim, is not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해 유사한 관심사를 공유한다. 김주영은 다섯 지역의 어느 곳도 기반

based in any of the five sites but divides her time between France and South 으로 하지 않으면서,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작업한다. 그녀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Korea. She is part of this project because her newly created work concerns the 것은 그녀가 새로 창조한 작업이 블라디보스톡 지역에서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한국

history of the forced relocation of Koreans from the Vladivostok region to Central 인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알마티에서 북쪽으로

Asia. She retraced the historical train route from Vladivostok to Ushtobe, a 3시간 거리에 위치한 정착지이자 종착지인 우츠토베에 이르는 역사적인 철도 경로를 거슬

settlement located about three hours drive north of Almaty, and the final 려 올라갔다. 그녀의 여행에서 하이라이트는 초기 추방자들의 묘지에서 거행되는 의식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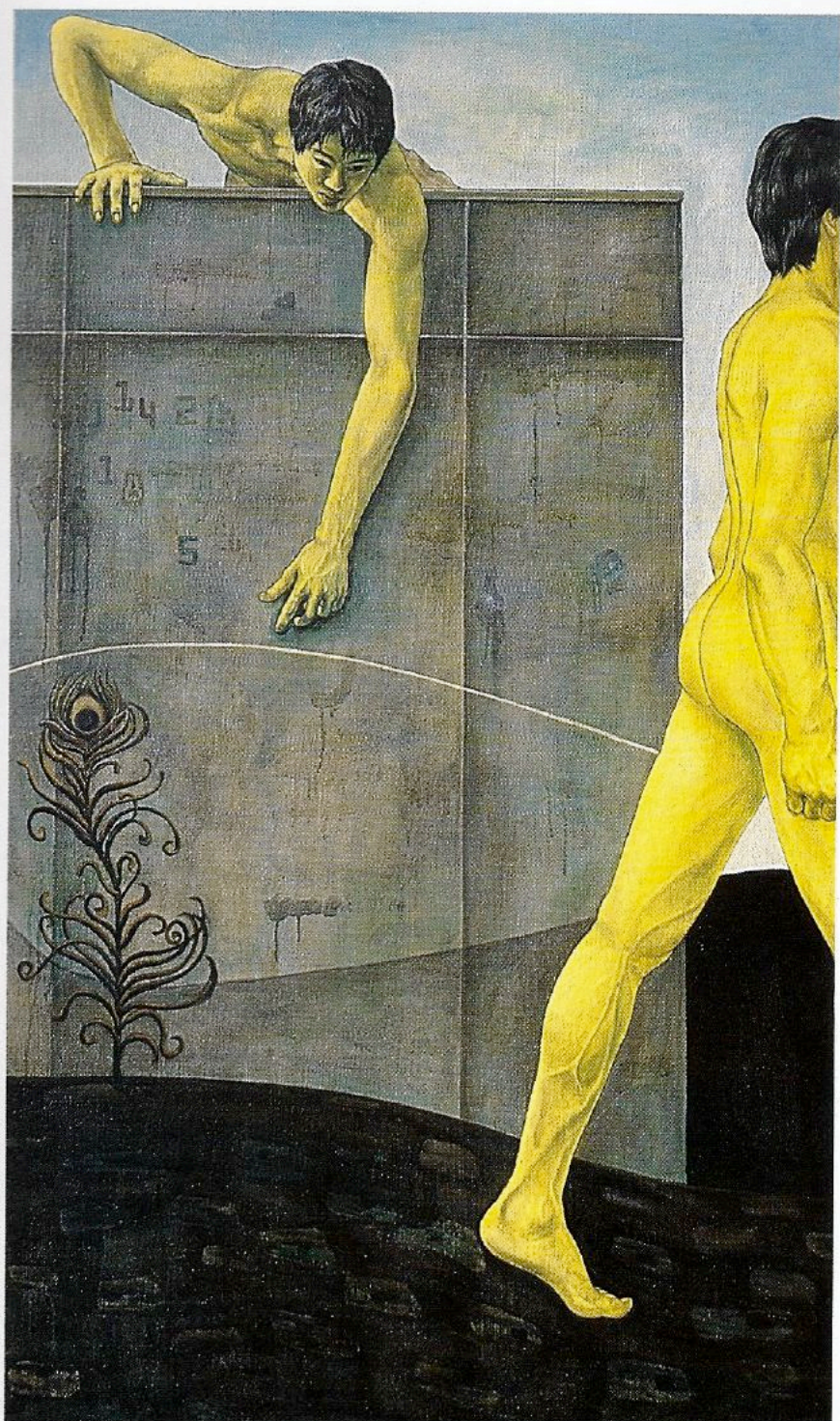
destination. The highlight of her journey is the ritualized performance of a 'gesah,' '제사'다. 빅토르 아바노비치 안의 흑백 사진 이미지들은 중앙 아시아 한국인들의 다양한 삶

conducted at the grave site of those initial deportees. Viktor Ivanovich An's black 의 양상들을 담고 있다. <여니언 필드 Onion Field>와 같은 몇몇 그의 이미지들은 거대한

and white images capture various aspects of life among the Koreans of central 양파 농장이라는 단순한 묘사적인 자질들을 초월하는 능력에 있어서 도상적이다. 작품주제

Asia. Some of his images, such as "Onion Field" achieve iconic effect in their ability 에 있어 빅토르 안이 깊이 체득한 지식이 그의 작품에 다른 방식으로는 지니기 어려운 수준





Yong Suk Kim 김영숙, *Crossing* 교차점, 2001, Oil on Canvas, 162 x 97cm



to transcend the mere descriptive qualities of a vast field of onions. One suspects the 권위를 부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아름 그룹의 몇몇 작가들은 일본에서의 한국인의 역사

that Viktor's deep lived knowledge of his subject matter lends his work a level of 와 위상이라는 측면을 이야기한다. 채준은 이 그룹에서 가장 연장자로, 마그리트처럼, 초현

authority that is difficult to assume otherwise. Several members of the Areum 실적 예리함으로 도상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낸다. 그는 신기에 가까운 데생 화가로, 캔버

group address aspects of the history and status of Koreans in Japan. Jun Chae is 스 크기의 사람 모습을 그리는 데만큼, 신랄하고 풍자적이며 정치적인 만화들을 그리는 데

the oldest of the group who, like Magritte, observes and represents social and 도 능수능란하다. 아름의 젊은 세대에 속하는 김성민도 채준처럼, 강한 묘사적 특성과 함께

political realities with a keen surrealist edge. A consummate draftsman, he is 고도로 양식화된 표현에 의존한다. "흰 적하"와 같은 친밀한 그림들은, 처음에 한국인들을

equally adept at drawing biting, satirical, political cartoons as he is at rendering 일본으로 데려온 뱃길의 가혹한 역사를 그리고 있다. 이 음울한 경험에 대한 그의 표현은

the human figure on the scale of a canvas. Like Jun Chae, Sung Min Kim who is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분간할 수 있는 보다 가벼운 순간들로 부드러워져 있다. 앞의 두 화

part of Areum's younger generation, also relies on highly stylized renderings with 가와 마찬가지로, 미국 작가인 조셉 박 또한 고도로 양식화된 묘사적 방식으로 그린다. 그

a strong graphic quality. The intimate paintings such as "White Shipment" depict 는 각각의 페르소나를 가진 인물들의 정의와 캐리커처 사이의 가는 선 위에 능숙하게 걸터

the harsh history of boat passages that initially brought Koreans to Japan. His 았는다. 동일한 양의 유머와 페이소스를 갖고, 박과 동시대를 사는 감동적인 인물들이 관객

rendition of this grim experience is tempered with lighter moments that can be 들을 꿈쩍 못 하고 시청하게 만드는 일상의 멜로드라마를 상연한다.

discerned upon closer examination. Like the previous two artists, Joseph Park, a

U.S. artist, also paints in a highly stylized graphic manner. Park is adept 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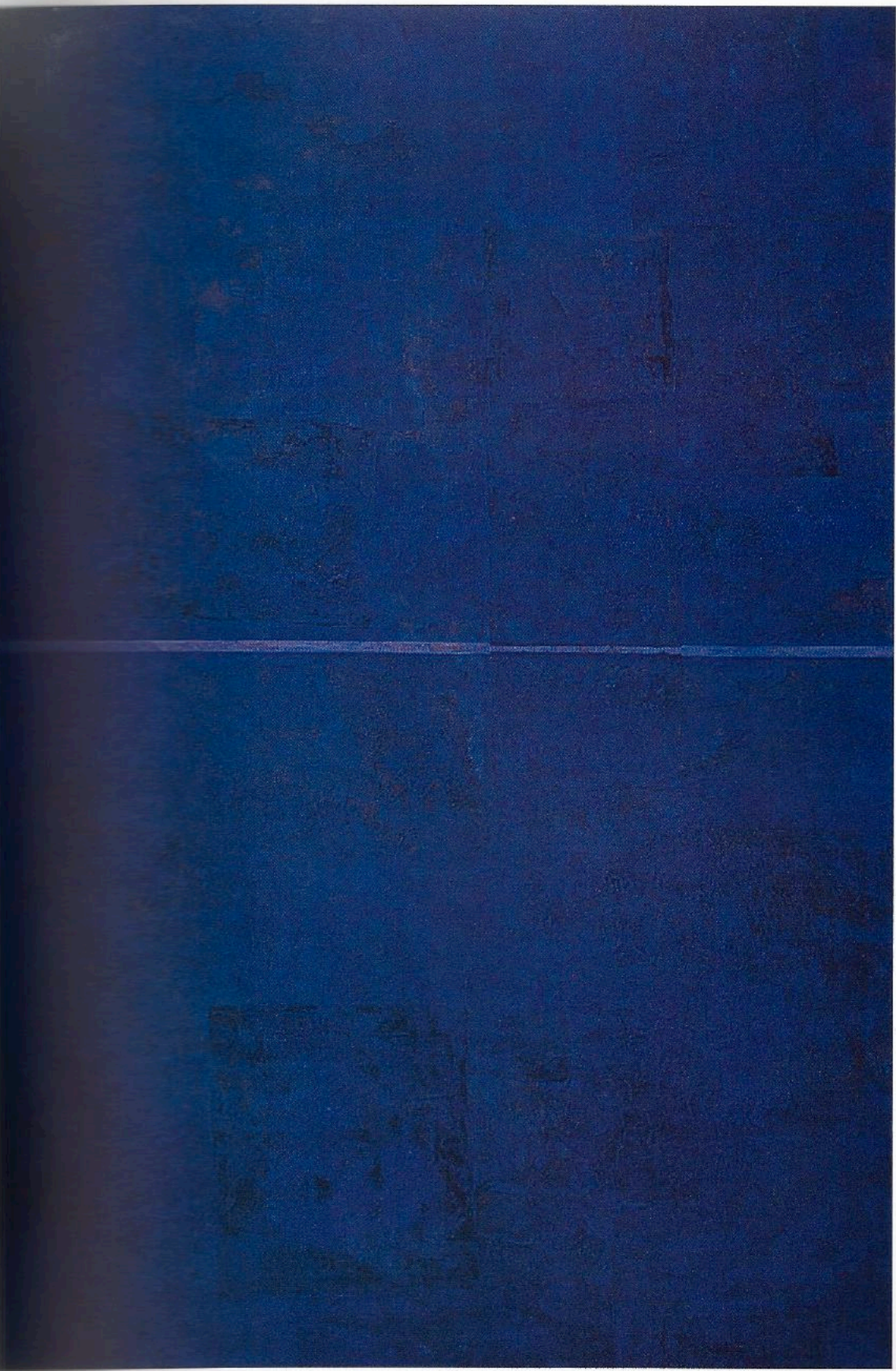
straddling the fine line between caricature and the definition of characters with

individual personas. With equal doses of humor and pathos, the compelling

characters who inhabit Park's contemporary world enact their daily melodramas

which has the audience staying tuned.





Il Nam Park 박일남, *Gap 사이*, 2001, Acrylic, Oil on Canvas, 194 x 130cm



In a similar vein, Sang Won Sung in  
비슷한 맥락에서, 상파울로의 성상원과 알

São Paulo and Sergei Mikhailovich Song in Almaty tinker and produce an amazing  
마티의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송은 그를 자신의 세계에서 생동감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

array of characters who come to life in their own universe. Sang Won's witty,  
련의 인물들을 빚어낸다. 성상원의 재치 있고 친밀한 형상들은 훨씬 더 기발하고 예측불가

intimate figures are much more quirky and unpredictable and made from an  
능하며, 무한대의 재료로 만들어진다. 제3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폐기물 숭배

unlimited array of materials. Like pieces from a "cargo cult," found in some parts  
(cargo cult)에서 나온 작품들처럼, 버려지고 폐기된 재료들은 성상원의 손에서 금붙이처럼

of the Third World, refuse or discarded materials are as good as gold in Sang Won's  
럼 훌륭한 작품으로 탈바꿈한다. 세르게이 송의 인형들은 실제 비례보다 좀더 커 보이지만

hands. Sergei Song's puppets assume larger than life proportions but come from  
원래는 보잘 것 없는 종이반죽에서 나온 것이다. 이 인형들은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

humble papier-mâché origins. Although these figures are intended for  
로, 이 중 간단하고 단순한 인형은 그가 휠체어를 탄 채로 혼자 공연을 하기도 하고, 좀더

performances, some of which are simple and presented solo from his wheel chair  
정교한 다른 것들은 주위의 아마추어들과의 공동작업을 한다.

and others, more elaborate, involve collaboration with various non-professionals,

they are equally compelling as still sculptural figures.

In Fung Sok Ro's sculpture, "The Gate,"  
로흥석의 조각 <문>에서, 거대한 도자기 탑

a commanding ceramic tower uses the portal as a metaphor for depicting the five  
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다섯 단계들을 나타내기 위한 메타포로 문을 사용한다. 이 고도로

defining stages of Korean history. In this highly schematized work, the present is  
체계화된 작업에서, 현재는 열린 통로의 한 쪽에 서 있는 남성상으로 구조물의 하단에 묘사

depicted at the base of the structure with a male figure standing on one side of an  
되어 있다. 현재는 글자 그대로나 은유적으로나 과거의 무게를 안고 있다. 역동적으로 대조

opened passageway. The present bears the weight of the past both literally and  
를 이루는 공간을 만드는 네 개의 벽면으로 이루어진 멀티미디어 설치작품인, 데이비드 정

figuratively. The portal also figures in Y. David Chung's "Stripmall," a multi-media  
의 <스트리플 Stripmall>에도 '문'이 등장한다. 내부는 비디오 영상으로 환하게 비치는 반면,





Fung Sok Ro 로흥석, *The Gate* 문, 1994, Ceramic Sculpture, 150 x 69 x 48cm



installation composed of four suspended walls that create dynamically contrasting 외부 벽들은 벽화 크기의 대담하고 양식화된 단색 드로잉들로 덮여 있다. 그의 슬로우 모션

spaces. The interior is brightly illuminated by video projections while the exterior 애니메이션은 내부 공간에서, 떠다니는 물건들에 의해 환각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 바바

walls are covered with bold, mural-size, stylized monochromatic drawings. 라 크루거의 LSD에 관한 작품을 생각해 보라,

Chung's slow-motion animation in the interior space creates a hallucinatory world dominated by floating commodities: think Barbara Kruger on acid.

Jennifer Moon and Lina Kim also 제니퍼 문과 리나 김은 설치작품을 전시한

present room-sized installations. Jennifer's interior resembles a norebang or a 다. 제니퍼의 경우 내부 환경은, 사교하는 어른들이 뛰어노는 공간이다. 이것은 종착지로 한

karaoke with its comfortable couch, mikes, and a video. Video shows Jennifer 걸음 내딛기 위한, 가치가 부여된 선택들과 퍼즐들투성이인 장애물 코스이기도 하다. '돈'이

singing songs that viewers can sing along with; songs about the search for love 라는 딱지가 붙은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영리 단체를 창설'하기 위해서 다른 경로를

and aspirations for enlightenment and social struggle. Jennifer really wants to 선택할 것인가? 이 작업은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정체성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know if you can be a hero, if just for one day. Steeped in the rich Brazilian history 대해 계속되는 작업의 일부이다. 제니퍼는 당신이 단 하루 동안만이라도 영웅이 될 수 있는

of conceptual art exemplified by the works of Hélio Oiticica, Lygia Clark and Cildo 지를 알고 싶어한다. 헬리오 오이티시카 (Helio Oiticica), 리지아 클라크(Lygia Clark), 실

Meireles, Lina, like her predecessors probes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도 메이렐레스(Cildo Meireles)의 작품들에 의해 예증되는 브라질의 풍부한 개념미술의 역

word/object/image. Inside her room in the exhibition, viewers are confronted with 사에 몰들어, 리나는 자신의 선배 작가들처럼 단어/대상/이미지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살핀

sets of small circular mirrors arranged in concentric circles and spelling out the 다. 이 전시장 내 그녀의 공간 안에서, 관람객들은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per

words, "Per Visibilia Ad Invisibilia" (also the title of the work). Long strings of crystal visibilia ad invisibilia)라는 단어들이 적힌, 동심원으로 배열되어 있는 작고 동그란 거울

beads extend out into the room from under a line of flour sacks stacked against 들과 직면한다. 긴 줄의 크리스탈 구슬들이, 멀리 끝 벽에 기대어 쌓아 둔 일렬의 밀가루

the far end wall. This provocative play of materials begs questions about their role 자루에서부터 쭉 뻗어나간다. 이 재료들의 도발적인 작용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Artist: Shimada w/Hwangbo Kangja 요시코 시마다/황보 강자

Medium: Family, Nation(Detail), 2001, 빠징코: 가족, 국가,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bility and invisibility. Is the bunker-like 것 사이의 관계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병커와 같이 배워진 밀가루 자루

arrangement of flour sacks protecting the precious tentacles of crystal (and the 들이, 우리의 시야 너머에 실제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소중한 크리스탈 촉수들

viewers?) from invisible forces that lie beyond our field of vision?  
(과 관람객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It is worth noting in closing that this  
마지막으로, 이번 작품 선정이 주류 국제적

selection of artwork attempts to look beyond the prevalent "international-style"  
인 전시나 비엔날레에서 보이는 지배적인 '국제적-스타일' 너머를 바라보려는 시도를 했음

seen in the mainstream showcases and biennials, and considers localized,  
과 세계화, 균등화 범위를 넘어서 작용하는 지방색이 있고 대화적 특징을 가진 예술 형태를

dialogue-specific art forms that function beyond the homogenizing scope of  
깊이 고려한다는 점은 언급할 만하다. 작가들이 수많은 서로 다른 예술, 역사적인 시간범위

globalization. Looking for art in the extremely diverse cultural terrains of the five  
와 영향력이 작용하는 다섯 개의 한국 디아스포라의 장소의 다양한 문화적 토양에서 예술

selected Korean diasporic sites that are in some cases far from the cultural centers,  
을 찾고 있는 것이므로, '어떤 허용정도(latitude)'를 가진 유연한 기준의 도입을 필요로 했

where artists operate from a myriad of different art historical timeframes and  
다. 이 선정에서 나타나는 이질할 수 없는 이질성은, 예술적 노고의 생명력은 대도시나 중

influences, necessitated the adoption of flexible criteria with "a certain latitude."  
심지역 밖에서도 언제나 존재하며 많은 사회적 경제적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The irrepressible heterogeneity of this selection suggests that the vitality of artistic  
제시한다. 탁월하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석회만과 채준 같은 많은 예술가들이 박물관이

endeavor is everpresent, even outside of major metropolises, and is able to  
나 상업적 하부구조의 부족, 혹은 그들의 지역적 맥락에서의 극단적인 주변화에 대항하면

withstand many social and economic obstacles. A number of artists with  
서, 인정을 받고 그들의 작품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예술

distinguished and prolific practices, such as Hee Man Suk, work despite the lack of  
적이고 문화적인 생산을 이해하는 것이, 디아스포라에서 생겨나는 사회적인 구성체들을 이

a public or commercial cultural infrastructure of museums and galleries. Others,  
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할렘 르네상스나 다문화주의, 영국의 흑인예술운동, 민중예술과 같

such as the equally distinguished Jun Chae, struggle against extreme  
은 초창기 문화운동의 담론 역사는 디아스포라에서의 새로운 문화적 구성체 비판을 위한

marginalization within their local context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attain visibility.  
실행 가능한 모델을 제공해준다. 한국적 디아스포라의 예술적 문화적 영역에 대한 이번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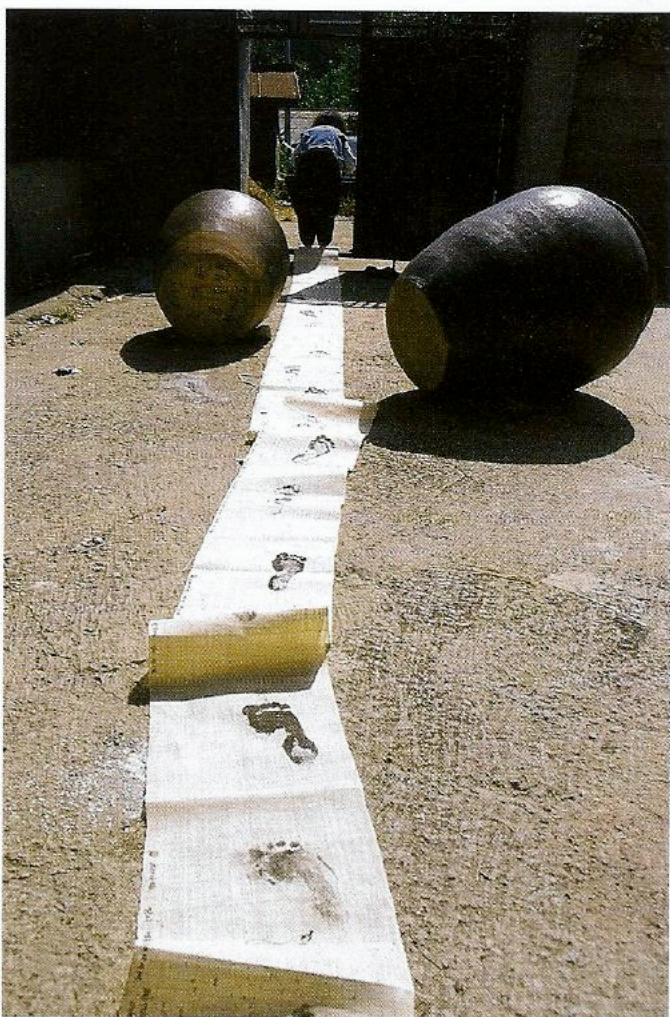
Hee Chang Yoon 윤희창, Installation View of *That Which is There* 거기에 있는 것, 1994, Ceramic Sculpture



Both cases result in deficien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works.  
시는, 이러한 지속적인 유산에 있어 중재자이자 그 수혜자로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This project owes a debt to a broad range of precedents that likewise have asserted the critical importance of artistic and cultural production to the understanding of emergent social formations. Discursive histories of earlier cultural confluences such as the Negritude movement, Harlem Renaissance, Multiculturalism, the Black Arts movement in Britain, and Minjoong cultural movement in South Korea present viable models for the critique of new cultural formations in the diaspora. This exhibition of the artistic and cultural dimensions of the Korean diaspora can be best understood as a beneficiary of and an intervention into these enduring legacies.





Kim Young Kim 김주영, *Memory: Koryo Saram <Ritual for the Spirit of Rice>* 회상 고려사람 <쌀의영혼제>, 2002, Performance/Installation

